

[국] 광대역통합망 구축 추진협의회 개최			2004-12-27
* 담당부서	정보화기획실	* 담당자	김정기 750-1241 (jkyaho@mic.go.kr)
위치	HOME > 알립넷 > 보도 및 언론해명		

정보통신부는 27일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고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광대역통합망구축추진협의회를 우면동에 있는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었다.

협의회에는 진대제 장관을 비롯, 산하기관, 통신사업자, 방송사, 제조업체의 최고경영책임자,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BcN 구축 촉진을 위해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 구축, 시범사업, 기술개발, 품질관리 구축 등에 1,800억원을 들일 계획으로 내년 말이면 200만 이상의 50-100Mbps급의 광대역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BcN 구축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은 시범사업, 연구개발망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E-PON 기술의 상용화와 저가형 광가입자망(WDM-PON) 상용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올해 미국의 캐스피안사와 공동개발에 성공한 품질보장형(QoS) 스위칭 시스템의 상용화에 주력, 광대역통합망개발과 전자정부통신망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BcN 시범사업자인 KT, 데이콤, SKT/하나로 등은 내년 상반기중 시범망 구축을 완료하고 7~8월 경 6대 광역시 1,350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CATV협회는 오는 2008년이면 셀당 100가입자, 1GHz 수준의 HFC 기반의 망 고도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KT는 내년시범사업에서 선보일 BcN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시연과 함께 세계최초 개발에 성공한 유무선 통합용 소프트 스위치를 발표했다.

이날 KT가 선보인 BcN 기반 서비스들은 음성, 데이터통합, 유·무선 통합, 방송융합의 차세대 서비스로 광가입자망 기반의 IP(인터넷프로토콜)-미디어 서비스, 영상전화와 휴대폰간 유무선 연동 화상전화 서비스, 고품질 통화서비스인 프리미엄 보이스 등 12종이다.

정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BcN 구축 사업에 대한 점검과 조율이 이뤄져 앞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 추진 정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이면 세계최초의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고 67조원의 투자가 유발되는 등 장비생산 111조원, 수출 508억달러 달성이 기대된다.